

2014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성경의 중심—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메시지 8

에베소서

(4)

믿음을 겸한 사랑을 체험함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

성경: 엡 6:23-24, 딤후전 1:14, 요 1:12, 14:23

- I.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평안과,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엡 6:23-24.
- A. 바울이 '평안'과 '은혜' 사이에 '사랑'을 삽입한 이유는 우리가 평안의 상황 안에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 안에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 B. 바울은 사랑이 핵심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평안과 은혜와 관련하여 사랑에 대해서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평안의 상태 안에서 보존되려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 C. 믿음을 겸한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수단이다 — 딤후전 1:14.
 - 1. 믿음은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고, 사랑은 그분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 요 1:12, 14:23.
 - 2. '믿음을 겸한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어울리고 사랑을 부축해 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 딤후 3:15.
 - 3. 교회는 믿음을 겸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이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작용한다 — 갈 5:6.
 - 4.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고 믿음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간다.
 - a. 이렇게 사랑과 믿음이 오고 감에 따라, 평안은 우리의 몫이 된다 — 엡 6:23-24.
 - b.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감으로써, 우리는 평안 안에 보존된다. 이러한 교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공급을 받으며, 주님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5.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사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원한다.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된다 — 요일 4:19.
- II.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엡 6:24.
- A.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생활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 — 엡 1:2, 3:2, 8, 10-11, 4:7, 29.

- B. 은혜이신 주님을 누리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한다 — 엡 6:24.
1. 1 장 4 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신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리키며 그 사랑으로 그분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한다.
 - a.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 b.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도 또한 이 신성한 사랑에 감동되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 c. 이러한 사랑의 상태와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2. (에베소서) 3 장 17 절에 따르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게 된다. 하나님의 경작지로서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뿌리를 내려야 하고 하나님의 건축물로서 우리는 건축되기 위해 터를 잡아야 한다 — 고전 3:9.
 3. 에베소서 4 장 15 절부터 16 절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는 것을 계시한다.
 - a.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며, 그 사랑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의 동료 지체들을 사랑한다 — 요일 4:7-8, 10-12, 16, 19.
 - b.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이다. 에베소서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 안으로 이끌어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신성한 사랑의 달콤함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엡 5:2, 25.
- C.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 엡 6:24.
1.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옛 창조물이 아니라 새 창조물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 엡 2:15, 4:24, 고후 5:17.
 2.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듭나고 새롭게 된 영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 요 3:6, 고전 6:17.
 3.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계시되고 가르치는 모든 핵심 항목들에 있어서 그 항목들에 따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아들의 자격에 이도록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심(엡 1:4-5), 아들의 구속(엡 1:6-7), 그 영의 도장찍으심과 보증하심(엡 1:13-14),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엡 1:18),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엡 1:22), 우리를 살리고 부활시키고 우리를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신 그리스도의 부활(엡 2:5-6), 새 사람(엡 2:15), 그리스도의 측량못할 풍성들(엡 3:8),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엡 3:9),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엡 4:21), 하나님의 전투장비에 속한 항목들(엡 6:11-17), 이 모든 것들은 변함없는 것들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이러한 변함없는 것들 안에 있어야 한다.
 4. 그리스도는 변함없으시며 교회도 변치 않고 에베소서에서 교회와 관련된 모든 긍정적인 것들도 변함없다.
 5.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에 따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삼일 하나님과 하나 안의 넷이라는 하나의 유기적인 실체가 되기 위해 그분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는 것을 의미한다 — 엡 4:4-6.
 6.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 엡 5:2, 25, 6:24.